



우리나라 댐의 역사는 경제 성장의 역사와 맥을 함께 합니다. 1973년 소양강댐 준공을 계기로 ‘한강의 기적’으로 불리는 산업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소양강댐은 동양 최대 규모의 다목적댐으로 준공되었습니다. 산업발전에 꼭 필요한 용수와 전기자원을 지원하였고, 풍부한 수자원을 바탕으로 중화학 공업으로 전환을 이끌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 물관리 발전의 초석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29억㎥ 규모에 달하는 소양강댐은 수도권 홍수와 가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물그릇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실제 소양강댐 준공 이후 송파와 잠실 등은 상습 침수에서 벗어났고, 지금의 강남 지역이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댐은 50여년 넘게 경제발전, 도시건설, 국민 물 복지 향상에 중추적 역할을 도맡아왔습니다. 댐의 역사가 곧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댐은 기존 고유의 기능을 넘어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이자, 기술 발전에 따른 첨단산업 물 수요 등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후변화로 인한 물 환경의 불확실성 증가는 해결해야 할 중대한 도전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댐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해 온 역사를 되돌아

보고, ‘새로운 물의 시대’를 만들어 갈 지혜와 용기를 얻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미에 있어 「한국의 댐(23)」의 가치는 더욱 소중합니다.

「한국의 댐(23)」은 댐의 역사를 총망라한 화보집입니다. 지난 2002년 발간한 「한국의 댐」에 담지 못한 신규 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신 드론기술도 활용하여 다양한 시각에서 댐을 관찰하고 조명하는 기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화보집이 댐 자료의 기록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미래 방향을 탐색하고 가늠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합니다.

특별히, 댐 화보집을 발간하기 위해 귀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해 주시고 국내 댐 산업의 오늘이 있기까지 기여해 주신 (사)한국대댐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담당자와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K-water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댐의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가올 새로운 100년에도 모두에게 행운과 건승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11월

윤 석 대

(사)한국대댐회 회장 / K-water CEO